

국민의 지혜와 단합된 의지로 메르스를 극복해 나갑시다.

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희망을 이야기하면,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메르스 바이러스(중동호흡기증후군)로 인한 아픔과 불안을 떨쳐내고,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.

먼저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,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.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 모두 나을 수 있다는 의지와 의료진에 대한 믿음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.

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인내하고 있습니다.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‘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겨내라’고 하셨듯,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함께하는 지혜와 의지로 거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.

성심과 헌신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 담당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, 모든 국민과 정부는 힘을 모아 노력하고, 경제위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은 사회를 꺼안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진력하고, 여기서 오는 맑은 기운으로 현재에 처한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불기2559(2015)년 6월 12일

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일 감